

# 初期 傳系小說 考

—薛氏女와 溫達傳을 중심으로—

조 수 학

〈차 례〉

I. 緒 言

II. 初期 小說의 要件

III. 作品考察

IV. 金大門과 鷄林雜傳

V. 맺는 말

## I. 緒 言

소설 발생의 내부적 요인을 文字의 보급, 남는 文人의 발생, 個我的 자각 등을 들 수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刺戟傳播說이 유력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마저도 이웃의 높은 문화를 끊임없이 수용하게 마련이다. 문인이 남아들면 독자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4세기 경에 고구려에서 太學을 세우고, 백제에서 박사 高興이 「역사」를 편찬하고, 6세기에 신라에서 居柒夫가 「국사」를 편찬하였으니, 이 史書들이 紀傳體인지 編年體인지는 아직은 알 길이 없으나 만약에 기천제라하는 이 시기에 이미 史書의 傳體가 성립한 것이 된다.

그 후 圓光法師가 陳에 다녀온 이래 7세기에 이르러서는 삼국의 자체들이 대거 唐나라의 국학에 유학하게 되고, 신라에서는 이미 향찰식 표기법이 고안되어 〈서동요〉, 〈혜성가〉를 비롯한 〈풍요〉, 〈원왕생가〉 등 여러 수의 향가가 발생하였으니 이 시기에 이미 소설을 발생시킬

문자의 보급이 성숙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8세기 초에는 慧超의 「왕오천축국전」과 金大門의 「高僧傳」, 「鷄林雜傳」, 「화랑세기」, 「한산기」, 「악본」 등을 찬술하였으니, 이 김대문의 「고승전」과 「계림잡전」에는 이미 志怪의인 說話와 殊異性이 짙은 僧傳과 傳系小說이 多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훈의 「海東高僧傳」에 박인량의 「수이전」이 실려 있는 사례로 보아서, 김대문의 「高僧傳」에도 古本 「殊異傳」이나, 아니면 수이전적인 화소나 이야기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을 것이고,<sup>1)</sup> 「鷄林雜傳」의 佚文으로 후술하는 「삼국사기」의 「法興王」조에 新羅에 佛敎가 公行하기까지의 과정, 즉 沙門 墨胡子, 順道, 阿道, 異次頓 등의 殉敎行蹟이 실려 있다. 내용이 얼마나 생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제목으로 보아서 주제가 일정하지 않은 私史傳 형식의 僧傳일 것이며, 또 승전 이외에도 「신라에 있었던 잡다한 개인중심의 전」이 기록되었을 것인 즉, 〈善化公主〉나 〈薛氏女〉와 같은 다수의 傳系小說 작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개인 列傳과 傳系小說의 차이는 실로 間髮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소설이 발생하기 까지에는 기나긴 세월이 소요하였다. 그 이유는 옛날 문필가의 記錄意識에는 역사적 사실에 虛構를 가한다는 罪責感이 너무나 엄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史記」 列傳은 秦왕조가 무너지고 楚漢의 통일전을 겪은 후이고, 唐傳奇는 隨나라가 무너지고 唐이 천하통일을 한 직후이며, 우리 나라에 초기 소설의 발생 역시 신라 삼국통일 전쟁을 겪은 후에 소설이 발생

1) 覺訓의 「해동고승전」에 朴寅亮의 「수이전」을 비롯한 3편의 「수이전」이 실려 있는 사례로 봐서 김대문의 「고승전」에도 「수이전」에 실릴 만한 작품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2) 擇堂 李植의 「世傳作水滸誌人 三代聾啞受其報……」를 비롯한 선비들의 小說에 대한 蛇蝎視의 例.

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추세로 봐야 한다. 羅唐 연합군 및 건당유학 생들에 의한 외부적 刺戟과 통일 전쟁을 겪는 동안 삶에 대한 처절한 自覺 등은 소설 발생의 내적 요인이 發生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新羅文化의 極盛期인 8~9세기에 초기 소설이 발생하는 것이 文化 發展의 公道인 것이다. 초기 우리 국문학자가 일인 학자들의 植民 文學 史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연이어 닦쳐 오는 西歐文化의 물결에 추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발전의 大道를 망각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른바 ‘唐傳奇’라고 해서 당나라 소설이 전부 다 ‘奇遇 전하는’ 傳奇小說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육조시대의 志怪(神怪)를 잇는 ‘記’, ‘錄’의 문체계통을 이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史書列傳 계통을 잇는 「郭小玉傳」, 「謝小娥傳」, 「鶯鶯傳」, 「李娃傳」, 「長恨歌傳」 등이다.

물론 裴鉞의 「傳奇」 외에도 초기 「古鏡記」, 「遊仙窟」, 「枕中記」 등을 비롯한 牛僧孺의 「玄怪錄」, 李復言의 「續玄怪錄」, 薛用弱的 「集異記」 등 傳奇類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당의 소설이라 하면 의례히 ‘당전기’로 통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II. 初期 小說의 要件

1972년에 池俊模는 그의 저 「신라한문학사」에서 서기 787년에서 880년 사이에 소설문학의 등장을 역설하면서 〈調信傳〉을 거론하였고, 뒤이어 1975년에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sup>3)</sup>에서 전기소설 성립요

3) 池俊模,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調信傳을 解剖함…語文學 제 32호, 螢雪出版社, 1975.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술을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소설이라 하면, 간단히 구전되어 오다가 후일에 문자로 정착된 단순히 괴이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록 괴이하다 하더라도 작자가 創作意思로 직접 집필하여 사건을 통한 하나의 價値觀念을 美적으로 표현한 문학작품을 말하는 것이 되겠다.……인간의 即 生活的인 사건에 우리의 감정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의 가치관념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적 意義를 지닌 소설의 軌道에 진입한 것이 된다.……이때에 애정에 관한 일이 如意하거나 不如意하거나 苦悶과 歡喜가 전일에 비하여 섬세하고 심각하여진다. 이쯤해서 소설이 생기게 된다. 애정이 그 전부는 아니지만, 전기소설의 대부분은 그 주제가 애정문제에 있다.<sup>4)</sup>

동년 말에 즐고 〈최치원전의 소설성〉에서 당전기 「유선굴」과 「최치원전」의 관계 및 「금오신화」의 〈만복사 저포기〉의 구성과 「최치원전」을 대비하여 그 소설성을 비교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바 있다.<sup>5)</sup>

근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소설의 성립요건을 말하는 자, 대개 설화와 대비해서 요건을 들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추이도 그러하거니와, 한편 중국 근대의 대문호 魯迅의 『중국기소설사략』에서 거론한, “1) 작가의 창작의식 및 文飾의 加味, 2) 사회현실의 보다 풍부한 반영”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신의 두 요건은 전기소설의 ‘記’系列 뿐만 아니라 ‘傳系’소설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적용된다. 그 후 說話와 傳奇小說을 구분하고자 하는 자는 대개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요건들을 첨가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鄭學城은 「崔致遠」을 전기소설로 보고, 전기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논하면서, 1) 사대부들의

4)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에 신라에 있다〉 어문학 32집, 한국어문학회 1975, 2.

5) 조수학 「최치원전의 소설성」, 영남어문학 제2집 1975년.

의도적인 창작, 전아 미려한 문예문으로 기술된 단편적 형식의 서사체, 2) 봉건사회 속의 사대부 혹은 귀족계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사회 현실의 반영, 3) 사건전개에 있어서 神異, 즉 비현실적 환상적 요소나 낭만적 성격<sup>6)</sup> 등을 들었고,

김종철은 전시 노신의 1)과 2)를 그대로 들고, 임형택의 〈羅末麗初의 전기문학〉<sup>7)</sup>에 실린 내용을 거론하면서, 3) 전기소설의 불합리성의 바탕 위에 놓여 있는 합리적인 작가의식, 4) 신분간의 모순대립, 성시의 번영 및 문인들의 높은 한문학 수준<sup>8)</sup> 등을 논하였고,

최근 박희병은 “1) 소설과 설화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장르론적으로 검토되고 그와 아울러 2) 소설 가운데에서 전기소설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4면에 달하는 詳論을 펴고 있다. 이를 대강 요약해 보면,

첫째, 1) 인물의 경우: 설화에서는 인물의 외면(행위)에만 관심을 쏟을 뿐인 데 비하여 전기소설에서는 내면까지도 서술하고자 한다. 2) 환경의 경우: 전기소설은 時·空의 환경이 구체적인 데 비하여 설화의 시·공적 환경은 뚜렷한 규정과 구체적인 인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만일 서화가 환경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설화는 이미 다른 장르로 이행중일 가능성이 높다. 3) 인물과 환경의 관련이라는 점에서: 전기소설은 이 둘의 긴밀한 내적 관계를 보여준다.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인물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환경에 대한 묘사를 발전시킨다.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는 전기소설만의 특징이 아니고, 소설 일반의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소설이 설화와 소설의 중간적 형태”<sup>9)</sup>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6) 정확성,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문학 연구입문』, 1982년.

7) 임형택, 〈나말 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8)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 전기소설과 관련하여 - 茶谷 李樹鳳선생 회갑기념논총 「고소설연구논총」, 1988년.

없다.

둘째, 작품에 표상된 시간의 본질 : 소설 장르 일반이 '그러하듯이' 전기소설에 있어서도 시간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 형성으로 표상된다. 즉 작품이 종료될 즈음에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의 변화와 정신적 성장, 혹은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전환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비하여 설화의 시간은 변화 성장이라기 보다는 '지속'으로 표상된다.

세째, 주인공의 미학적 특질 : 전기소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애정문제를 다룬 전기소설의 경우,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고독한 인간상이 그 중요한 미학적 표상을 이룬다. 그 표출방법으로 흔히 독백, 편지, 시, 노래 등이 동원된다. 설화적 인간은 고독을 알지 못한다. 또한 그는 외면적 행위에 의해 표상될 따름이지 내면성을 보여주는 법이 없다.

네째, 창작의 목적의식 : 설화는 기본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하여 전기소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된다. 이 목적의식은 장르의 내적 특질을 구현한다. 즉 뚜렷한 주제구현, 치밀하게 짜여진 푸롯, 인물의 개성적 浮彫, 매개적 인물의 다양한 활용, 전기적 인간의 면모 등.

다섯째, 전기소설의 문체 : 분위기를 중시하는 감각적이며 화려한 문어체의 한문이며, 종종 서정적 경사를 보여주며, 시적 응결과 압축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전기소설은 文飾을 중시하기에 對句나 故事를 곧잘 구사한다. 이 점에서 야담계 한문단편이나 전계 한문단편 및 설화에 약간 문식을 가한 稗說類와도 명백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六朝의 志怪와 傳奇의 차이에 대한 사전적 定義를 살펴보면,

1) 志怪는 人鬼의 이야기를 소박하게 기술한 것이나 傳奇는 의식적

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간, 1982년 외 여러 편에서 같은 논지를 펴고 있음.

창작이다.

2) 傳奇의 내용은 괴이한 기록의 수준을 넘어 현실적 생활문제나 인간사회의 여러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

3) 志怪는 주로 농민과 농촌의 얘기지만 傳奇는 도시를 주 배경으로 하며 등장인물 역시 다양한 인간군상을 이룬다.

4) 志怪는 단순히 재미에만 의존하는 데 비하여 傳奇는 인물들의 형상화가 좀 더 심각하며 배경에 대한 디테일 역시 치밀하다.

5) 傳奇는 단순히 소일거리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 폭 넓은 관심과 이해로서 時事를 諷刺하기도 한다.

이상의 諸說들은 대개 ‘記’계열의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그 성립요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기소설을 다루는 데 일조의 공이 없지 않으나, 이 역시 동양의 문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양의 소설에는 근본적으로 記계열과 傳계의 二元的 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판이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비록 후대의 혼합상이 없지 않으나, 이 혼합상마저도 源流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합상도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這間 우리 학계의 실정이다.

위에서 거론된 要旨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傳系 소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중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작가의 창의성 문제에 있어서, 記系列의 傳奇는 창의성이 풍부한데 비하여 傳系소설은 어떤 모델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細事와 文飾 등 潤文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 인간의 卽生活的인 사건에 감정의 공명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는 後者 즉 傳系소설이 보다 절실한 경우가 많으며,

셋째, 김중철의 “전기소설의 불합리성의 바탕 위에 놓여 있는 합리적인 작가의식” 문제는 傳系소설은 이와 반대로 합리성의 바탕 위에 불

합리성이 의도적으로 가미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네째, 신분간의 모순대립 문제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바탕한 것이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조화하려는 경향이 많다.<sup>10)</sup>

다섯째, 박희병의 “표상된 시간의 본질은 성장, 변화, 형성에 따른 삶의 태도나 인식의 전환”은 記系列의 소설중에서도 夢遊錄이나 夢字類 소설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하여 傳系소설에서는 이와 반대로 主人公의 인식이나 태도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敵對役 측에 變化나 形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박희병의 “抒情的 경사와 시적 압축” 문제는 전계소설은 전기소설에 비하여 매우 희박하다. 그 이유는 전기소설은 대개 自己의 문장력을 과시하는 溫卷<sup>11)</sup>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작시에 대한 재능도 동시에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서정적인 경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계소설은 史傳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문장력을 과시하는 溫卷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정확성의 “봉건사회 속의 사대부, 혹은 귀족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사회 현실의 반영”이라는 요지는 <최치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女主人公인 八娘과 九娘이 비록 識者이기는 하지만 紈上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이상의 정리는 說話와 전기소설의 차이를 밝혀 놓은 바탕 위에서 전기소설과 전계소설을 가름하는 適用上의 差異點을 살펴본 것이므로, 이는 史傳(公史傳 私史傳 포함)과 傳系小說을 가름하는 중심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傳과 傳系小說을 가름하는 要訣은 ‘個人的 人生問題追求’에 있다. 史

10) <선화공주>, <운달전>,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등 대개의 고소설들에서는 궁극적으로 신분 계층간의 조화를 지향한다.

11) 宋 趙彥衛의 「雲麓漫抄」 唐世舉人 先籍當世顯人 以姓名達諸主司 然後投獻所業 踰數日又投 謂之‘溫卷’



書의 列傳중에서도 특히 〈滑稽傳〉, 〈刺客傳〉, 〈遊俠傳〉 등은 의견상 소설의 요건을 거의 갖춘 듯 하지만, 거기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나 국가의 公益에 있고, 그들의 微賤한 身分에 拘碍됨이 없이 靑史에 이름을 등재하게 된 것은 소설에 못지 않은 人本思想의 발로라 하겠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春秋大義와 같은 社會正義의 실현이란 강력한 全體主義의 意志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를 소설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문제들을 要約하여 傳과 傳系소설의 차이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傳은 국가나 사회의 전체주의적 公益指向的인 데 비하여 傳系 소설은 個人主義的 人生의 문제를 追求한다. 그러므로 소설에 있어서는 주로 애정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 외의 개인의 행복문제로서 대개 출세나 소원성취 등이 대두하게 된다. 비록 〈춘향전〉이나 〈심청전〉이 열녀, 효녀를 주제로 삼았다고 하지만, 독자가 향수하는 美的 感動은 어사출도의 통쾌함과 춘향의 雪冤과 재회 및 신분상승에 집중되며, 심청 역시 왕비가 되고 심봉사도 눈을 뜨게 된다는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소설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흥미 유발을 위한 話素의 개입이나 재담 및 극적인 장치가 고안된다. 이에 비하여 전의 경우는 흥미소나 극적인 장면은 오히려 사실의 신빙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금기시된다. 흥미를 유발하는 話素는 대개 불합리적 성향을 띤다. 이는 곧 합리적인 바탕 위에 놓여 있는 이야기를 불합리적 성향을 띤 작가의식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 전기소설과는 반대의 성향을 띤다. 이것은 지나친 합리와 지나친 荒唐無稽한 불합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탄력적 반작용이라 생각된다.

셋째, 전은 주제가 사건과 직결하여 표면화하는 데 비하여 소설은 주제가 이면화하고 사건이 표면화한다. 종래 우리 古小說의 주제가 千篇

一律인 勸善懲惡이라는 가치격하적인 평가들은 바로 이 전계소설을 두고 한 논평이지마는, 그래도 傳으로 처리되지 않고 소설로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주제의 裏面化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sup>12)</sup>

네째, 기타 애정갈등이나 고독한 인간상, 인물의 내면상 서술, 인물과 환경의 치밀상, 개성의 浮彫, 푸릇, 매개인물, 화려한 문어체 등은 일단 고려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 들은 작품의 소설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요건은 되지마는 소설과 전 내지는 설화를 가름하는 필수 요건은 될 수 없다.

다섯째, 종래 소설의 段落은 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 五段落으로 구분하여 왔지만, 이는 記계열 소설이나 서구식 소설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전계소설에는 序頭 人定記述이란 한 段落을 더 追加시켜야만 된다. 이 序頭 人定記述은 傳文體의 褒貶性으로 인하여 특히 강조되는 필수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sup>13)</sup>

### Ⅲ. 作品 考察

#### 1. 薛氏 女

첫째, <설씨녀>의 史傳의 주제는 孝와 信이 되겠으나, 전문을 통하여 강렬하게 부각되는 이미지는 정든 사람과의 약속을 버리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민하던 끝에 극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사회의 공익적 측면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랑

12) 이 勸善懲惡의 주제 문제에 대하여는 記系列 소설에는 관계가 없고, 전계소설은 전의 문체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요지를 拙稿 <고소설의 연구시각에 대한 재고>에서 발표한 바 있다. 『영남어문학』 22집, 1992. 12.

13) 때로는 전 이외의 기 문체에서도 인정기술이 쓰여지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恣意에 속하는 것으로, 문체적 요건은 아니다.

의 성취에 주안점이 놓여 있는 傳系小說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외롭게 살고 있는 설씨녀가, 아버지의 수자리 당번을 대행할 길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嘉實이란 착실한 소년이 나타나서 수자리를 대행하겠다고 자청하자, 이를 가상히 여긴 아버지가 딸과의 혼인을 약속한다.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보서는 효심의 발로로 볼 수도 있겠으나, 3년간의 군역 기간이 6년이 되어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타처에 혼인날을 받아 놓고 딸에게 강요를 하지마는 설씨녀는 아버지의 강요에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되니, 孝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게 되고, 죽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信이 되겠으나,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거울을 나누고, 가실의 말을 맡기고 하는 과정에서 설씨녀와 가실 사이에는 사랑의 순정이 익을 대로 익은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대의는 설씨녀의 사랑의 결실을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공익적인 효와 신은 상당히 퇴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실이 군역을 떠나는 이별의 장면에는 意圖적인 興味素가 개입되고, 또 뒷날 설씨녀의 고독을 표상하는 복선마저도 깔고 있는 소설적 作意와 구성이 있다.

후일의 약속을 기약하는 信票로서 거울을 반분하여 한 짝씩 나누어 가졌다가, 6년 후 수자리의 고역으로 얼굴이 몰라 보게 변해 버린 가실이 나타나서 한 짝의 거울을 던지므로서 이를 맞추어 재회하게 되는 마지막 극적 장면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짜임이 분명하며, 또한 가실이 떠날 때 맡겨 놓은 名馬는, 설씨녀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몰래 약혼을 하고 혼인날이 임박하게 되자 설씨녀는 도망하기 직전에 고독한 처지를 호소할 길이 없어 가실이 맡겨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릴 때, 극적으로 가실이 나타난 것은 역시

복선을 통한 흥미유발적 구상이 아닐 수 없다.<sup>14)</sup>

셋째, 이 이야기가 단순한 史傳이라면 전체의 즐거리가 〈효녀 지은〉이나 〈향덕〉과 같이 孝와 悃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가 진행할 수록 공익적 德目は 퇴색하여 이면화되고, 사랑의 약속에 대한 심한 接近葛藤을 통하여 마지막 극적인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역시 사랑이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결과라 하겠다.

네째, 설씨녀의 애정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딸의 장래를 염려한 것이겠으나, 설씨녀는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한 생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遁去를 하기에 이르고, 그 고민하는 孤獨象은 가실이 두고 간 말 앞에서 홀로 太息流淚하기에 이르며, 인물의 내면상 서술은 시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절실한 표현은 없고, 다만 가실이 老夫의 군역대행을 자청하는 심정을 ‘嘗悅美薛氏 而不敢言’ 등에서 약간 엿볼 수 있으며, 인물에 대한 기술은 외모보다 내면을 강조하여 설씨의 경우 ‘志行脩整 見者無不歆艷 而不敢犯’로 표현하고, 가실의 경우도 ‘雖貧且屨 而其養志貞男也’로 표현되어 있다. 기타 매개인물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나 개성의 부조, 푸릇, 화려한 문어체 등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소설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계소설의 전형적인 단락을 유지하고 있다. 첫 단락 인정기술에서, 성명, 마을, 신분, 외모 품행, 心志, 이웃의 인정 등이 기술되고, 둘째 단락에서 사건이 발단된다. 즉 老父가 수자리 당번이 됨에, 딸의 몸으로 이를 대행할 길이 없어 번민하게 된다. 셋째 단락에서, 가실이란 착실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를 대행하겠다고 자청하여 일차의 갈등은 해소되고, 가실과 혼인을 약속하고 두 사람은 신표로 거울을 반분하고, 가실은 애마를 맡기고 군역을 대행하러 떠나는 과정이 전개된

14) 이것은 마치 안톤 체호프의 「悲嘆」(The Lament)에서 마부 ‘이오나’가 말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다. 네째 단락에서는 수자리의 기한, 3년이 지나가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려는 아버지와, 끝까지 가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부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각하여 위기로 몰고 간다. 다섯째 단락에서 설씨녀가 아버지의 강요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가기를 작정하고 가실의 말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는 장면이 위기의 절정에 이른다. 여섯째 단락에서, 이때 군역의 고통에서 물골을 알아 볼 수 없게 변모된 가실이 나타나서 거울의 한 쪽을 던지고 두 사람이 재회하고 더불어 해로한다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사회 현실의 반영문제는, 대체로 전계소설은 기계열 소설이나 전기소설에 비하여 한층 더 치밀하게 반영된다. 그것은 傳이란 문체의 성질에 의한 것으로, 이 〈설씨녀〉나 〈온달전〉은 비록 전이라고는 하지 마는 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최치원〉에 비하면 사회 현실의 반영이 치밀하다.

## 2. 溫 達 傳

애정이나 혼인과 관계되는 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남녀의 양 주인공이 있게 마련이지마는, 그러나 그중에서도 작자가 의도하는 주인공은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 전계소설의 경우, 그 귀결되는 한 사람은 대개 제목으로 나타난다. 〈춘향전〉, 〈이생규장전〉, 〈숙향전〉, 〈운영전〉, 〈설씨녀〉가 그러하듯이 이 〈온달전〉의 주인공은 평강공주가 아니라 바보 온달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분석도 온달을 중심으로 고찰키로 한다.

첫째, 〈온달전〉이 왜 〈三國史記〉列傳에 실렸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무엇을 사회의 공적으로 대두시켰는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과 정이 든 계기도 없었는데 왜 부왕의 희롱한 말을 책을 잡아서 기어코 온달을 찾아가게 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

이 온달에게 주어진 천부의 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온달의武功은 총으로 통하지만 그것은 건강부회에 속하고 모든 무공은 온달의 출세의 수단으로 동원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소설로 쓰여진 것을 그대로 史官의 자료수집에 섞여서 史傳에 수록된 듯하다.

둘째, 온달이 정말 바보라면 평강공주의 구애를 합리적인 논리로 거절할 줄 모를 것이고, 비록 國馬를 타들 망정 五部兵士와 함께 사냥을 함에 항상 앞장 서서 소획물이 가장 많고, 요동에 출전하여 대공을 세우는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爲愚溫達’ 자체가 흥미적인 개입이며, 父王으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남달리 맺어진 공주와의 인연이라, 비록 마지막 전사하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려도 널이 움직이지 않았고,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삶이 결판이 났구나, 아아 돌아가시라’ 하자 마침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는 人情의 미련을 헤아린 작가가 意識적으로 개입시킨 흥미소라 하겠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史傳이라면 이와 같은 대분은 蛇足에 불과할 것이다.

셋째, 이 이야기의 史傳的 주제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왕의 늪우침도 없고, 공주의 烈貞도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온달의 무공도 출세와 榮達에 집중되었을 뿐 忠을 강조할 만한 대문이 희박하다. 미친한 신분의 바보가 공주를 아내로 얻어 부마로 인정을 받고, 무공을 세워 大兄의 벼슬에 올라 貴族의 신분 상승이 된 것은 계층간의 조화를 꾀한 소설이 아닐 수 없다.

네째, 공주의 애정갈등은 역시 접근갈등이다. 부왕의 위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보 온달을 찾아 갔으나 거절을 당하고 사립문에서 밤을 새움은 고독이다. 비록 시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온달의 주검을 담은 관을 어루만지며 호소하는 공주의 말은 그대로 내면상의 발로이다. 그의 개성의 부각, 푸릇, 문어체 등도 傳과는 다소간 구별이 된다.

다섯째, 전문 (30자×31줄)의 구성 단락 역시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온달의 인정기술 2줄이 첫 단락이며, 어린 공주가 우는 것을 달래느라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희롱한 말이 화근이 되어 기어코 부녀간의 정을 끊고 왕궁을 떠나는 대목이 둘째 단락으로 사건의 발단이며, 홀로 길을 물어 온달의 집에 찾아 갔으나, 老母도 거절하고 온달은 여우귀신이라고 쫓아내고 사립문에서 밤을 새우고 다시 老母를 달래어 겨우 동거하게 되는 과정이 셋째 전개단락이며, 공주의 금패물을 팔아서 가산을 장만하고, 名馬를 사서 타고 군신이 사냥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네째 단락이며, 요동벌에 출정하여 무공을 세우고 벼슬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아 위엄과 권세가 日盛하는 과정이 다섯째 단락으로 온달의 출세가 절정에 달하는 단락이며, 양강왕이 바뀌자 온달이 자청하여 죽령의 서쪽땅을 찾겠다고 출정하여 전사하고, 움직이지 않은 관을 공주가 어루만지며 영결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단락이 된다.

〈설씨녀〉는 「三國史記」 권 제48에 〈백결선생〉, 〈효녀지은〉, 〈도미〉 등 11편의 이야기와 함께 수록된 이야기이다. 〈효녀지은〉도 일견 〈심청전〉과 대비되는 소설로 볼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너무나 공익성 강조되고 개인의 인생문제는 이면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도미〉 이야기 역시 열녀의 정조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효녀지은〉과는 달리 짓밟히는 백성의 처절한 모습이 인생문제를 숙고케 하는 소설로 볼 수도 있겠으나, 描寫와 文飾이 너무 빈약하므로 본고에서의 거론을 주저하였다.

〈온달전〉은 「三國史記」 권 제45에 〈을파소〉, 〈박제상〉 등 10편의 이야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박제상〉도 일견 소설같이 보여지나, 그가 처참한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은 인생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생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삶과는 관계가 먼 全體主義의 化身인

왕을 위한 충성으로 집중된 것으로 소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위와 같이 분석 검토한 결과 <설씨녀>와 <온달전>을 초기 傳系小說이라고立言한다.

#### IV. 金大問과 鷄林雜傳

1. 김대문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권 제1, 신라 본기 제1, <남해차차웅>조에 “次次雄或云茲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라 하였다. 이는 즉, ‘차차웅’은 신라말로 무당을 이르는 말로,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이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므로 인하여 마침내 높은 어른을 ‘자충’이라 일컫는다는 뜻이다.

2. 같은 책, 제 권 제 3, 신라 본기 제 3, <눌지마립간>조에 “金大問云 癡立者 方言謂 厥也 厥謂威操 准位而置 則王厥爲主 臣厥列於下 因以名之”라 하였다. 이는 즉, ‘마립’은 신라 말로 말뚝이다. 말뚝을 함조<sup>15)</sup>라 한다. 위치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왕의 말뚝을 주로 삼아 신의 말뚝을 늘어 놓으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3. 같은 책, 권 제 4, 신라 본기 제 4, 법흥왕 15년조 말미에, “此據 金大問鷄林雜傳所記書之 與韓奈癡 金用行所撰 我道和尚碑所錄 殊異” 즉, 이것은 김대문의 계림잡전의 기록에 의거하여 썼다. 한내마 김용행이 지은 아도화상 비의 기록과는 매우 다르다.

4. 같은 책, 권 제 46, 열전 제 6, 끝에 “金大問 本新羅貴門子弟 聖德王三年 爲漢山州 都督 作傳記若干卷 其高僧傳 花郎世記 樂本 漢山記 猶存” 즉 김대문은 본래 신라의 귀문 자제로서 성덕왕 3년(서기 704)에 한산주 도독이 되어 전과기 약간 권을 지었는데 그의 <고승전>, <화랑

15) 함조(威操): 意味不明이다. 「삼국유사」에서는 풋말(厥標)라고 하였다.



세기), <약본>, <한산기>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 1, 2로 봐서 그는 역사에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차차옹’이라든가, ‘마립’과 같은 어려운 말의 풀이를 거의 김대문의 해설에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1, 2의 기록은 그 내용으로 봐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엮던 당시 남아 있었다는 4편의 제목에는 해당할 만한 것이 없고, 또 <계림잡전>이란 인용 서목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에게는 또 다른 저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의 기록 3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의 <고승전>일 듯 한데, ‘이것은 김대문의 <계림잡전>의 기록에 의거하여 썼다’고 한 점으로 봐서 <계림잡전>은 실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내마 김용행의 ‘아도화상비’문과는 내용이 아주 다르다고 하면서, 이 <계림잡전>의 내용을 실은 것은 아마도 ‘아도화상비’가 너무나 현실을 초월한 예언적 신비성으로 가득하므로, 그를 버리고 이를 취한 듯 하다.<sup>16)</sup> 여기에서 <계림잡전>에 의거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둔다.

처음 눌지왕 때에 중 목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왔는데 그 고을 사람 모레가 집안에 굴로 된 방을 만들어 그를 편히 모셨다. 이 때에 양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의복과 향을 보내왔으나, 임금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라서 사람을 보내어 향을 가지고 여러 군데 물어 보았다. 목호자가 이것을 보고 명목을 말하되 “이것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면서 피어 오르는 까닭에 정성이 신성한데 사무친다. 이른바 신성이란 것은 삼보(三寶)에 불과한 것이니 첫째는 불타(佛陀)요 둘째는 달마(達磨)요 셋째는 승가(僧伽)이다. 만일 이것을 태우고 발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왕의 딸이 병으로 위독하므로 왕은 목호자를 시켜 향을 태우고 발원

16) 아도화상 비문의 내용은 「삼국유사」 권 제 3, 흥법 제 3, ‘阿道基羅’편 중간에 상세한 기록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하도록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목호자에게 예물을 후하게 주었더니 목호자가 물러 나와 모례에게 왕으로부터 받은 예물들을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서 작별코자 한다”하고는 얼마 후 간 곳이 없어졌다.

비처왕 때에 이르러 阿道(阿를 我로도 적는다.)라는 화상이 있어 시자 세사람을 데리고 역시 모례의 집에 왔다. 그 모습이 목호자와 비슷하였는데 두어 해 동안 살다가 아무 병도 없이 죽었다. 그의 시자 세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서 불경과 계를 강독하니 가끔 불교를 신봉하는 자가 생겼다. 이 때에 와서 왕도 역시 불교를 일으키고 싶었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말쟁이 많으므로 왕도 난처하였다. 이 때 가까운 신하 이차돈(異次頓, 또는 處道)이 아뢰어 말하기를 “청컨데 소신의 목을 쳐서 여러 사람들의 물의를 진정시키소서”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본래 도를 이르고자 한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른 일이다.”하였다. 그가 답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불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신은 비록 죽더라도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하였다. 왕이 이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어 보았다. 모두가 말하기를 “요즘 중들을 보니 짧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말하는 것이 기괴한 속임수이니 몇몇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대로 놓아 둔다면 후회가 있을가 염려되오니 우리들은 비록 중죄를 당할지라도 감히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차돈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는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불법을), 들어 보면 불교는 그 연원이 심오하니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을가 합니다.”하니 왕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강경한 주장을 깨뜨릴 수 없구나. 너만이 딴 말을 하니 두 편을 다 따를 수는 없다.”하고 마침내 형리에게 명을 내려 장차 목을 베려 하였다. 이차돈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다. 만일 부처가神通력이 있다면 내가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목을 베자 목뎀 자리로부터 피가 솟아 나오는데 빛같이 ‘젓’빛처럼 희었다. 여럿이 피이하게 여기어 다시는 불교 행사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지를 못하였다(새주는 앞의 3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삼국사기」에는 위와 같이 「계림잡전」의 기록을 상세히 실었는데 비하여 「삼국유사」에서는 위의 내용을 약 8줄로 줄이고, 대신 아도화상 본비의 내용을 약 20줄로 상세히 실어 놓았다. 이를 보아서 양서의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차이는 곧 사실을 추구하는 사가의 합리성과, 신통한 이적을 추구하는 종교가의 신비성이라 하겠다. 그런데 내용에는 이차돈의 이적을 그대로 실고 있는 점으로 봐서 김대문은 전승상의 이적은 굳이 피하지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다. 전승상의 이적을 피하지 않은 것은 김부식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말하기를 김부식과 같은 유가들은 신화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실례로서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거서간〉을 비롯한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신화를 「삼국사기」에 그대로 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계림잡전」에는 위와 같이 사회의 현실사항을 취급한 예로 보아서, 그중에는 흥미소가 개입된 개인의 인생문제를 다룬 「설씨녀」와 같은 전계소설도 상당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김대문에 관한 기록은 失傳이 되어서 그 출생과 가계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다만 신라 귀문의 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어떤 귀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1989 초에 경남, 김해에서 발견된 「화랑세기」<sup>17)</sup>에는, 1세 화랑인 魏화랑은 자기의 고주부이며, 2세 화랑인 二化郎과 淑明公主 사이에서 난 만아들이 원광법사이며, 둘째 아들인 菩利沙門이 자기의 증조부이고, 증조모는 萬龍娘主(김유신의

17) 이 「화랑세기」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천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 몇 번의 전사를 겪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라, 원문이 그대로 존속할 리도 없으며, 그렇다고 「삼국사기」의 기록과 맞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지금의 사회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모두 위작이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듯하다. 특히 위작이라 주장하는 측의 근본적인 실수는 「화랑세기」를 화랑들의 傳記로 보는 데서 결정적인 착각을 일으킨 듯 하다. 「화랑세기」는 화랑들의 世代紀로 보는 견해가 정확하며, 그렇게 보는 경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므로 필자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 선다.

모, 만명부인의 언니)이며, 그 아들 禮元이 자기의 조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대문은 역대 화랑의 집안이며, 신라 왕실과는 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그는 당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큰 학자요, 문장의 대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가가 삼국 통일전쟁을 겪은 직후의 시기에, 그의 인생관 역시 새로운 각성이 없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 V. 맺는 말

소설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 요건은 1) 문자의 보급, 2) 남는 문인의 발생, 3) 個我의 자각이 있어야 하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기성 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자극전파를 받을 만한 충분한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신라 통일기에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향찰식 표기법은 문자 보급의 여분이며, 12세의 소년이 당나라에 유학을 갈 정도이면 이 시절에 이미 남아 도는 문인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약 10년간의 통일전쟁을 겪는 동안 민족적 자각과 개인의 인생문제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며, 三國匡合에 장기간 羅, 唐 연합군의 합동작전과 외교적 교류 및 수 백명에 달하는 건당 유학생들의 왕래는 당문화와의 접촉이 충분하였으며, 그들의 전기소설에 자극을 받아 殊異系의 소설이 발생함은 당연한 역사적 추세일 것이다.

우리의 소설은 記계열의 소설과 傳系소설이 그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므로 초기 소설을 논함에 있어서도 항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초기소설에 관한 논의는 傳奇小說에 치우쳤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초기 전계소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설씨녀」와 「온달전」이 초기 전계소설에 해당함을 입증하였다. 그 이외에 〈調信夢生〉, 〈金現感虎〉, 〈善花公主〉, 〈努盼夫得 怛怛朴朴〉, 〈崔致遠〉

등에 대하여는 이미 소설이란 주장이 발표되었으며, 이 외에도 새로운 안목으로 분석해 보면 전계소설 및 記계열의 소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전계소설과 傳과를 구분하는 요건은 첫째, 전은 사회의 공익성을 주지로 하는 데 비하여 전계소설은 개인의 인생문제에 주안점을 두었고, 둘째 전은 사실을 위주로 하는 합리적 성향을 띠는 데 비하여 전계소설은 흥미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하여 殊異的 성향을 띤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소설로 <설씨녀>와 <온달전>을 본고에서 전계소설임을 입증하였거니와, 이 외에도 새로운 안목으로 「삼국사기」 열전이나 승전 등을 분석 고찰해 보면 더욱 많은 전계소설 및 기계열소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작품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은 책명으로는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비롯하여 그의 「고승전」, 그리고 작자 불명의 고본 신라 「수이전」, 최치원의 신라 「수이전」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이어서 박이량과 김척명의 고려 「수이전」 및 「삼국사기」 열전의 일부와 「삼국유사」들이 중세소설의 맥을 잇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비록 작품명은 전하지 않으나 소설을 지을 만한 작가로서는 김대문 외에도 김인문, 강수, 최승우, 최언위, 설총, 박인범, 원걸, 왕거인, 김운경, 김수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